



오늘의 말씀

Scripture reading

창 22:1-19

Gen 22:1-19



창 22:1-19 Gen 22:1-19

1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 Some time later God tested Abraham. He said to him, "Abraham!" "Here I am," he replied.



창 22:1-19 Gen 22:1-19

2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2 Then God said, "Take your son, your only son, Isaac, whom you love, and go to the region of Moriah. Sacrifice him there as a burnt offering on one of the mountains I will tell you about."



창 22:1-19 Gen 22:1-19

3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엮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곳으로 길을 떠났다.

3 Early the next morning Abraham got up and saddled his donkey. He took with him two of his servants and his son Isaac. When he had cut enough wood for the burnt offering, he set out for the place God had told him about.



창 22:1-19

Gen 22:1-19

9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9 When they reached the place God had told him about, Abraham built an altar there and arranged the wood on it. He bound his son Isaac and laid him on the altar, on top of the wood.



창 22:1-19 Gen 22:1-19

10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10 Then he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the knife to slay his son.



창 22:1-19 Gen 22:1-19

11 그 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11 But the angel of the LORD called
out to him from heaven, "Abraham!
Abraham!" "Here I am," he replied.



창 22:1-19 Gen 22:1-19

12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12 "Do not lay a hand on the boy," he said. "Do not do anything to him.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because you have not withheld from me your son, your only son."



창 22:1-19 Gen 22:1-19

13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13 Abraham looked up and there in a thicket he saw a ram caught by its horns. He went over and took the ram and sacrificed it as a burnt offering instead of his son.



창 22:1-19 Gen 22:1-19

14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곳 이름을 여호와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14 So Abraham called that place The
LORD Will Provide. And to this day it is
said, "On the mountain of the LORD it
will be provided."



창 22:1-19 Gen 22:1-19

**15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15 The angel of the LORD called to
Abraham from heaven a second
time**



창 22:1-19 Gen 22:1-19

16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16 and said, "I swear by myself,
declares the LORD, that because you
have done this and have not withheld
your son, your only son,



창 22:1-19 Gen 22:1-19

17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17 I will surely bless you and make your descendants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and as the sand on the seashore. Your descendants will take possession of the cities of their enemies,



창 22:1-19 Gen 22:1-19

18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8 and through your offspring all nations on earth will be blessed, because you have obeyed me."



창 22:1-19 Gen 22:1-19

19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19 Then Abraham returned to his
servants, and they set off together
for Beersheba. And Abraham
stayed in Beersheba.

설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God tested Abraham



주님 품 안에서...
누구나 행복한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상속자 후보

조카 롯
칭지기 엘리에셀
이스마엘

두 번의 거짓말

이집트 바로왕 앞에서
그랄왕 아비멜렉 앞에서

I. 하나님의 시험을 예상하십시오 (1-2절).

**창 22:1 이런 일이 있는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
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
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Gn 22:1 After these things God
tested Abraham and said to
him, "Abraham!" And he said,
"Here am I."**

창 22:2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 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

Gn 22:2 Then God said, "Take your son, your only son, Isaac, whom you love, and go to the region of Moriah. Sacrifice him there as a burnt offering on one of the mountains I will tell you about."

창 22:2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Gn 22:2 ... your son, your only son,
Isaac, whom you love...**

창 22:12 ...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

Gn 22:12 ...your son, your only son.

창 22:16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Gn 22:16 ...your son, your only son,

창 22:12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Gn 22:12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because you have not withheld from me your son, your only son.

**II.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
하십시오 (3-10절).**

창 22:3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엮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 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곳으로 길을 떠났다.

Gn 22:3 Early the next morning Abraham got up and saddled his donkey. He took with him two of his servants and his son Isaac. When he had cut enough wood for the burnt offering, he set out for the place God had told him about.

**창 21:1 주님께서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서 그대로 이루시니,**

**Gn 21:1 Now the LORD was
gracious to Sarah as he had
said, and the LORD did for
Sarah what he had promised.**

**창 21:2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
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Gn 21:2 Sarah became
pregnant and bore a son to
Abraham in his old age, at the
very time God had promised
him.**

**창 20:11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
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
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
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
고 생각하였습니다.**

**Gn 20:11 Abraham replied, "I said
to myself, 'There is surely no fear
of God in this place, and they will
kill me because of my wife. '**

창 20:8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Gn 20:8 Early the next morning Abimelech summoned all his officials, and when he told them all that had happened, they were very much afraid.

창 22:5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 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

Gn 22:5 He said to his servants, "Stay here with the donkey while I and the boy go over there.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창 22:7 ...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

**Gn 22:7 ... "The fire and
wood are here," Isaac said,
"but where is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창 22:8 ... "애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

Gn 22:8 ... "God himself will provide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my son."

**창 9:7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
여라. “**

**Gn 9:7 As for you,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multiply on the
earth and increase upon it.”**

**III.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내
십시오 (16-19절).**

17절 -

“반드시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18절 –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 22:16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
끼지 않았으니,**

**Gn 22:16 and said, "I swear by
myself, declares the LORD,
that because you have done
this and have not withheld
your son, your only son,**